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6

1998

별책 목록 : 어린이란



Brigham Young

표지 의 내 경



표지

앞표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마지막 사진으로 알려진 것임, 시 알 새비지가 1877년 브리감 영 대관장이 별세하기 얼마 전에 촬영했음; 브리감 영 대관장의 서명, 1875년; 그레고리 피 크리스토퍼슨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뒤 표지: 신문 동판으로 소개된 브리감 영 대관장; 브리감 영이 만든 필기용 작은 책상, 1832년 이전 어느 때에 만든 것임, 그리고 브리감 영이 사용했던 목공 연장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세인트 조지 성전, 유타 주 역사 협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어린이란 표지

사진 촬영: 레베카 토드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거듭남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8 당신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함-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잔 유 판보러와 마빈 케이 가드너
- 16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 줌 브루스 시 허펜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26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28 용서하는 마음 로더릭 제이 린튼
- 36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
- 44 나아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 티 앤더슨
- 48 초등학교-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플랫 레브제논

청소년란

- 7 노을처럼 순수하게 시라 비튼
- 14 함께 나누는 기도 사이언 오웬 베시
- 34 왜 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어린이란(별책 부록)

- 2 탐험: 우리 예언자들의 침례 장소 윌리엄 하틀리와 레베카 토드
- 4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데니스 페이지
- 8 함께 나누는 시간: "여호와를 의뢰하고" 시드니 레이놀즈
- 10 심심풀이
- 11 자수품 줄리 외델
- 14 친구 사귀기: 알래스카, 빅 레이크의 어네스틴 도널드슨 레베카 토드



36쪽 참조



16쪽 참조



48쪽 참조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E 피우스트

심야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올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리,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다 해일즈, 제프리 알 슐런드, 헨리 비 아이어럼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랜드

고문: 제이 이 잰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과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헬러

그래픽 책임자: 엘렌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다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밥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다윈 워커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매리얼 마틴데일

제작 보조: 케스 테일러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시카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인: 제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데니스 케비, 래드 알 피터스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스

통 권: 제 387호, 제 35권, 제 6호
등 록: 1987년 10월 4일, 라-3186
발행일: 1998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원
편집인: 송우관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월간호는 권당 500원입니다.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안드/지부/안드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 기편자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 중국어, 만다린어, 네델란드어, 핀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헝가리어
격월간: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 벨기에어, 세비아어, 체코어, 피지어, 갈바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터갈로그어, 우크라이니아어, 베트남어

©1998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리 소용. Printed in Korea.

June 1998 no. 6, SONGIDO-LI POT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nd new address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애독자 편지



우리의 영감 받은 예언자

오랫동안 저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1996년 9월호 리야호나(포르투갈어판 성도의 빛)의 "충실한 신앙"이라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에서 필요로 했던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영감 받은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성과 신앙으로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레이시 크리스틴 테 아시스
브라질 모기 미립 스테이크
코스모폴리스 와드

복음의 씨를 뿌림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새로운 회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열성적인 독자이며 리야호나(스페인어판 성도의 빛)를 처음으로 읽던 그때부터 충실한 구독자였습니다. 특히 연차 대회 말씀은 저에게 빛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름과 다른 임무들을 행할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아들과 저는 비회원인 친구들에게도 잡지를 보여 줍니다. 몇몇 친구들은 관심 있어 했으며 집에서 읽을 수 있도록 빌려 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번성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나 에스터 파라부에
아르헨티나 치빌코이 지역,
브라가도 지부

기다림의 보상

발케우스(핀란드어판 성도의 빛)가 도착하기를 2주간이나 더 기다린 끝에 그 색깔과 그곳에 실린 기쁨에 넘친 사람들의 사진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실린 말씀을 읽고 그것이 읽혀지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곳들을 생각해 보고 이 특별한 잡지를 증거 하는 성신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요르마 칼리오
핀란드 탐페르 스테이크
투르쿠 제1와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

선교사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물론경이 인류에게 주어진 계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저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관심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교회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나디아 수제테 라메리아리소아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역,
안타나나리보 제2지부

진리를 배우는 수단

제가 리야호나(영문판)를 읽을 때 전세계의 기고자들의 각기 다른 기사를 읽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리를 배우는 수단으로 리야호나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루이 에이 알칸헬
필리핀 아파리 지역,
랄로에 지부



거듭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는 각각 거듭나면, 즉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고귀하고 선한 것을 영원히 추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처럼 거듭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요한복음 3:4 참조) 그에 대한 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도마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이에 대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5~6)고 응답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거듭난다는 것은 엘마가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엘마서 5:14) 거듭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하여 바른 길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당수의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쓴잔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 잔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전해진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미대륙의



구세주의 메시지는
우물가에서나 옥수수밭,
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해졌을 때나 지금이나 다 같다.
그것은 천국이 하늘에 있듯이
지상에도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그분의 사업을 맡아 행하는 자들은
거듭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내리신 쓴잔에 관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니파 이삼서 11:11 참조) 사람에게는 저마다 삼켜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봉착하게 됩니다. 잔혹하거나 무심한 성품을 가진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날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못한 회원들은 비애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쓴잔을 마시는 인간은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넓게 더 높이 오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좌절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영과 마음이 거듭나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수년 전, 보니 맥킨 지오크는 전국 휠체어 데코레이션 경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솔트레이크에 사는 이 어머니는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남편과 아리따운 다섯 명의 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휠체어를 예쁜 인형으로 장식해 자녀들이 자신을 보면서 어머니도 장애 외에 다른 어떤 좋은 면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그녀와 역시 장애자인 그녀의 친구는 “휠체어가 있으니 우린 정말 운이 좋은 게 아니겠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정치 분석가인 제임스 레스턴씨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지 케이 체스터턴은 파란만장한 일생의 말년에 이르러 쓴 자서전 중에서,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했다.” 레스턴씨는 또한, 사람들이 오래된 우리의 여러 가지 공적인 기구나 조직들에 대해 아무리 비판적으로 생각할 지라도, “실사 그렇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우정 관계나 서로에 대한 충실한 사랑에 보답하거나 신뢰감을 가지며, 개인 생활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서 폴로니우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네게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고, 그들의 우정 또한 확인해 봤으니, 너는 굴렁쇠로 그 친구들을 네 영혼 쪽으로 잡아당겨 우정을 고이 간직하거라”(1.3.62~63)

도마가 물었듯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알게 될까요?(요한 복음 14:5 참조)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봄으로써 비로소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믿음직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으로만 향하는 것, 즉 내 영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 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나는 자신 안에만 간혀 생의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는 했다네.” 지나치리만큼 우리 자신의 욕망과 필요 사항에 연연해하다가는 큰 위험이 따르게 되며, 이 경우 잘못하면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은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이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로마서 8:6)

이 생의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들 앞에 용기와 활력과 권세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펼쳐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분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에 힘입어 지시되거나 통제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로마서 9:21) 십이사도 보좌인 토마스 이 맥케이 장로는 자신의 형제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헌츠빌 부근에 있는 차가운 냇물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가 덜덜 떨릴 만큼 찬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는 겁에 질려 독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답니다. ‘자 어서 들어와, 물이 아주 좋아.’ 우리는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도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성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주체 의식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쓸모 있고 중요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무언가를 줄 것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를 통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즉 나만 더 잘 될 목적이라면, 큰 야망을 품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보다 스므 곱절 더 소망



사진 촬영: 크레에그 다이몬드

거룩하신 구속주의 말씀에는 모두에게 주는 희망과, 때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부모나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주는 큰 권능이 담겨져 있다.

을 갖고 애쓸 거요.”(3. 2. 50~53)

거룩하신 구속주의 메시지 가운데는 모두에게 주는 소망과, 때로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억압 받고, 혹은 사랑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모나 사람에게 주는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지상 최고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을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요한복음 3:8) 모릅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거듭남으로써 자기 연민, 의심, 좌절, 고독 등의 울가미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가 있으며, 고상하고 아주 수준 높은 원리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구세주의 메시지는 우물가에서나, 옥수수밭 또는 갈릴리 바닷가 등에서 전해졌을 때나 지금이나 다 같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하늘에 있듯이 지상에도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그분의 사업을 맡아 행하는 자는 다시 거듭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이 물은 그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큰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심지어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든지 무척 외로운 사람들조차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누구나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인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그분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자는 곧 구세주께 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보내신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존경 받을 일은 없다.

안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황달에 걸려 고생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저희들 사이에서 이 병은 “선교사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 나머지 혹시 죽게 되거나 앓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분은 아니지만 한 여성이 저를 극진히 간호해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분은 치료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보수 봉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훗날 제가 그 분이 계시는 또 다른 세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된다면 거기서 그 분을 뵙고 싶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종파나 신앙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존경 받을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은 큰 힘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이 들려주는 짧지만 의미 있는 말 한 마디는 소외되어 고통 받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 저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에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거듭난 사람은 고귀하고 선한 것들을 영원히 추구하기 시작한다.
2.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영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자유가 있다. 즉 자기 연민, 의심, 좌절, 고독과 같은 울가미에서 벗어나며, 그리스도와 같은 고귀한 삶을 추구하도록 향상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4. 스스로 구세주의 사업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은 거듭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노을처럼 순수하게

사라 바튼

땅거미가 깔릴 무렵 어머니와 나는 조부모님
택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상념에 잠겨 차 창 밖
을 내다보고 있었다.

“노을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어머니가 말씀했
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렇게 멋진 노을을 보기는 태어나서 이
번이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혹시 데비가 한 말 생각
나니?” 나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갑자기
흥미가 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이신
엘로이즈 아줌마는 고통스런 암과 투병 생활을
하다 2년 전 돌아가셨다. 그 분은 네 자녀를 두
고 가셨는데, 그 중에는 일곱 살 난 막내 데비도
있었다.

어머니는 슬픔을 삼키면서 “그 녀석이 그러더
라. 노을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고”라고 말씀했
다. “죽은 엄마가 자기를 보며 웃고 있는 것 같다
는구나.” 나는 다시 저녁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
렸다. 데비의 말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
게 했다. 이제 내게 노을은 단순히 빨강고 노란
것이 한데 어우러져 저녁 하늘을 화려하고 아름
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다
가왔다. 그것을 보며 엘로이즈 아줌마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떠올랐다. 그 분들이 남기고
간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생각이 났다.

말없이 운전을 하면서 어머니와 나는 노을이
차차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나무, 별, 달, 구름 같은 것들이 한층 더
아름답게 다가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감사한다. 또한
노을처럼 순수한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
낄 수 있는 현명한 어린 소년에 대해서도 감사드
린다. □

당신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힘

리그머 하이스트의 모범

잔 유 핀보러와 마빈 케이 가드너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일을 통하여 크신 사업을 이루심을 알 수 있느니라”(니파이일서 16:29)

때 때로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을 운명론적 인식으로 바라봅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각자의 작은 영역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들 속에서조차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노르웨이의 한 일흔 여덟 살의 여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리그머 하이스트이며 그녀의 경험들은 한 인간, 즉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의 증거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리그머 하이스트는 마흔 셋이었습니다. 때는 1963년이었고 많은 부분에서 리그머는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명한 내과 의사와 결혼했고 세 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처럼 그녀는 노르웨이의 국교인 루터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두 개의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가족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녀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존 스티하임 장로와 존 마셀 장로가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리그머는 곧바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메시지가 경이롭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곧 그것이 참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과의 대화는 그녀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고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 모임에 그 질문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리그머의 새로운 질문들로 방해 받은 그룹의 지도자들은 그녀에게 그룹 모임에 그만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녀가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을 제발 그만두라고 사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개종을 반대했습니다. 압력이 그렇게도 컸기 때문에 사실 리그머는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진리들을 기억하기로 은밀히 결심하고서 선교사들에게는 다시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리그머는 만약 그녀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정말로 악마의 교회라면 제발 교회에 대해서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머리 속에 자꾸만 더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나가던 교회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는 전에 태버나클 합창단 엘범에서 들었던 두 개의 찬송가가 연주되고

리그머 하이스트(오른쪽)와 아스트리드 맨스루가 노르웨이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녀의 많은 사업들 중 하나인 비교 종교학에 관해 리그머가 출판한 책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왼쪽: 하이스트 자매의 책,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위: 그녀는 십이 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사도와 그의 아내, 준과 오슬로 대학 교수인 구토름 플로이스타와 그의 아내 크리스툰과 같이 저명한 말일성도들과 노르웨이인들 간의 우정을 증진시키도록 도왔다. 맨 위, 오른쪽: 리그머가 플로이스타 교수(왼쪽)와 브리감영 대학의 트루먼 매드

슨 교수를 방문했다. 오른쪽 가운데와 맨아래: 스타인 페더선 장로, (가운데) 오스발 브야링 장로와 함께 공보 활동을 조정중. 아래: 노르웨이 교육, 연구 및 교회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인 구드먼 하르네스가 1995년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있었습니다. 목사가 일어나서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던… 자들을 생각하며…”(히브리서 13:7)라고 설교할 때, 리그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르던 자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음을 가슴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간에 새로운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리그머의 남편은 한 존경 받는 노르웨이 신학자인 이너 몰랜드에 의해 쓰여진 책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묘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그머를 말리다가 마지못해 침례를 받도록 승낙했습니다. 리그머는 1964년에 침례 받았으며 그로부터 삼 년 뒤,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리그머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락한 집을 떠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그녀는 첫 아들을 낳은 이후 처음으로 직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적었듯이,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극히 작은 키가 거대한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기쁨으로 행하”면, 우리는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써” 그분의 위대한 구원해 주시는 힘이 결국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3:16~17 참조)

있는 힘을 다하여 만사를 행함

지성과 저력과 결단력으로 리그머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서기로 일하다가 청소년 학교의 보조 교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1940년 나치의 노르웨이 점령으로 그녀는 대학 공부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머는 전임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기 위해 대학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친선 사절로서의 주목할 만한 일생 일대의 사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67년 어느 날 한 윤리학 강의 시간에, 후에 오슬로 대학 학장이자 교회와 문화의 편집자가 된 잉거 런닝이라는 한 젊은 신학 교수가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서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그머는 재빨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국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좀 다른 종교도 믿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녀는 런닝 교수에게, 자신의 전남편은 이너 몰랜드가 쓴 책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닝 교수가 가끔씩 이너 몰랜드와 점심 식사를 하곤 한다는 말을 하자, 리그머는 그와 인터뷰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개종한 지 겨우 몇 년밖에 안된 리그머 하이스트는 노르웨이의 손꼽히는 신학자의 사무실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스트 여사,” 그는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나는 카톨릭이나 감리교, 혹은 침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몰몬교로 개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녀 특유의 매력적이고도 기분 좋은 솔직함으로 리그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그 말도 안되는 내용을 어디서 듣게 된 거죠?” 몰랜드 교수가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부터 그것을 얻었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선교부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며 그의 사무실은 여기서 길 아래쪽으로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잘못된 내용이 자신의 가정에 끼친 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몰랜드 교수는 수심에 차서는 다음 판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77년 몰랜드 교수는 약속한 대로 선교부장인 존 랭글랜드와 하이스트 자매, 또 다른 사람들이 1978년 발행된 개정판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영이 그렇게도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하이스트 자매는 그 중요한 모임을 회상합니다. “몰랜드 교수의 사무실을 떠날 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우정과 이해의 띠

리그머는 사범 대학을 마치고 청소년 학교에서 전임 교사로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전공으로 하여 3년간의 특수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1980년, 그녀는 8학년과 9학년들을 위한 사회 과학 강

좌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발달 심리학에 관해 연구하고 연구록을 쓰기 위해 브리감 영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 후 1988년, 68세의 나이로 그녀는 노르웨이 국립 신학교로부터 기독교 부문 학위를 받았는데 그 곳은 대부분의 루터 교회 신부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공식 국교만이 승인되어 온 노르웨이에서는 말일성도 교회에 대한 교육이 특히 필요합니다. 1845년에 소위 반대자 법이라는 것이 다른 기독교 교회들도 “반대의” 신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 교리 때문에 말일성도 교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승인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 있었습니다. 1988년이 되어서야 교회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정식으로 인정 받았습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말일성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하이스트 자매는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선생님 중의 한 분인 구토름 플로이스타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를 제안해 보라고 했을 때, 리그머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교육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반이 물문교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교수는 동의했으며 말일성도 학자이고 후에 브리감 영 대학 예루살렘 센터의 회장이 된 트루먼 매드슨이 오슬로 대학으로 초대되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에 매드슨 박사가 노르웨이를 방문한 후, 노르웨이와 브리감 영 대학 교수들간의 정규 교환 프로그램이 설립되었습니다. 구토름 플로이스타는 교환 프로그램으로 유타를 방문한 첫번째 노르웨이인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그머가 몰랜드 교수와 만나게 주선을 해주었던 잉거 런닝(현 오슬로 대학 학장)이 두 번째 교수였습니다. 오슬로 대학에서 비와이유를 방문한 세 번째 교수는 프랜시스 스에스테드로 그는 노벨 평화상 위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르웨이 교육, 연구 및 교회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인 구드먼 하르네스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정의 띠가 계속하여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르웨이 성경 협회의 소책자가 모든 학교의 어린이들로 하여금 말일성도 교회를 비방하는 영화를 볼 것을 추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리그머는 협회 총 서기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그 영화를 재검토하고 그 영화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담긴 교회 회원들이 쓴 책을 읽어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트루먼 매드슨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의 헌신에 무척 감동을 받았었기 때문에 리그머의 요청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협회 소책자로부터 문제의 영화를 삭제시켰으며 전 노르웨이 학교에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도왔습니다.

전생애 동안 그녀는 비교 종교학 강좌를 통해 많은 젊은 이들에게 교회를 소개시켰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명 받으면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와플과 잼을 놓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8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교과 과정 회의에서 교회에 관한 전시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리그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공헌은 1994년에 출판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란 비교 종교학 관련 책을 편집하고 발행한 일일 것입니다. 리그머는 37개의 종교로부터 온 대표자들로 구성된 한 그룹을 지휘합니다. 그녀는 각 종교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대해 한 장씩 쓰도록 지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쓸 수 있는 기회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처럼, 그들은 그들의 개개인의 교회에 관련되어 발행된 잘못된 내용 때문에 매우 슬퍼했었죠.”라고 하이스트 자매는 말합니다.

리그머는 노르웨이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에 관한 1994년의 세미나에서 소수 종교를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교실에서 각기 다른 종교들에 관한 정확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주제는 노르웨이의 학교 어린이들이 다른 종교에 관해 배울 것을 요청하는 한 1997년도 법으로 인해 현재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이스트 자매의 강한 자신감은 설득력의 산물입니다. “복음은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5분 이상 있을 수는 없지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러나 리그머는 기꺼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그녀의 마음이 특별히 용기 있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전 그냥 ‘아,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어느 날 그녀는



78세의 리그머 하이스트는 노르웨이에서 주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도우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분은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제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리고” 곧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분은 제가 말도 좀 할 줄 안다는 것을 아시지요.”

리그머는 사색적이 되면서 말합니다. “제 자녀들은 다 결혼했고 각자 자녀들도 두었어요.(딸 한 명과 몇몇의 손자들은 결국 교회에 들어왔다.) 저는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아무것도 떠벌릴 것은 없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경이로운 경험들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외롭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많은 모험들을 떠맡죠.”

이윽고 그녀는 거실에 걸려 있는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제가 절대 집안으로 들이는 것을 허락치 않는 감정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전 그냥 그리스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죄송해요.’라고 말하죠. ‘당신은 제가 당신을 위해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저를 위해 상처 입으셨지요.’”

그렇게 78세의 리그머 하이스트는 노르웨이에서 주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도우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리그머 하이스트 처럼 전세계의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들이 속한 곳에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아신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편지나 글을 You Can Make a Difference,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ah, USA 84150-3223 으로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기사와 관련된 사람의 사진을 최소한 한 장 정도 동봉해 주십시오.

신문을 주워 들고는 노르웨이의 검사장인 조지 프레드릭 라이베 몬이 노르웨이의 가족 생활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한탄하는 흥미 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의 추구가 국가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교의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 가르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이스트 자매는 그 검사장이 어떤 교회가 그가 주장한 바로 그런 것들을 이미 행하고 있으며 그 교회의 이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주 후에 그 검사장이 하이스트 자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라이베 몬 씨에게 교회에 대해 설명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 대해 두 가지를 아신다고 생각해요.”라고

함께 나누는 기도

사이언 오웬 베시

나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6학년 지리 탐사 여행의 하나로 웨일즈 산악 지방을 찾아가, 테널린이라는 숙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친구 루이스와 같은 방을 쓰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곧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우리 둘은 방에 있는 작은 싱크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고, 이보다 훨씬 조그만 거울도 서로 사이 좋게 이용했다. 다음 날 입을 옷도 미리 잘 준비해 등산화와 두꺼운 양말 곁에 놓아두었다. 루이스는 나보다 먼저 준비를 끝내고 침대에 올라갔다.

기도를 제외한 모든 일을 마친 나는 침대 곁에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루이스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으며, 밤마다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루이스가 준비를 다 끝내면 나도 침대로 가 잠든 척하면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다. 우선, 루이스가 무엇인가 말을 걸어올 것이고, 그럴 경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를 끝낼 수가 없게 된다. 다음으로, 나는 이튿날 해야 할 힘든 과제들로 약간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여 위안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다.

나는 잠시 어찌하여야 좋을지 망설이다가 루이스에게 이제 곧 기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좀 놀라는 기색이

있으나 나는 그가 어떤 응답을 하기 전에 먼저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곤 눈을 감고 혼자 말없이 기도를 드렸다. 루이스는 내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 데도 여전히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자리에 눕는데 너무 조용해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서 무슨 말을 할까 궁리를 하는데 루이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매일 밤 그렇게 하니, 사이언?”

나는 “응.” 하고 대답했다.

잠시 아무 말이 없던 루이스가 질문했다. “대체 어떤 말을 하는데?”

놀랐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루이스에게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는 동안 심장 박동은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당황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루이스에게 함께 기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 친구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좋아.”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 둘은 침대 머리맡에 함께 무릎을 꿇었고, 이어서 내



가 큰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끝나자 나는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루이스는 멧쩍게 웃으면서 “글쎄, 네 덕에 무언가 생각할 게 생겼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려고 누웠고, 당시 루이스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 나는 또 어둠 속에 누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영을 느낄 수가 있었다. 루이스도 나처럼 영을 느꼈기를 바란다. □

자녀들의 마음에 약속을 심어 줌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철심인 정원회 회원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다시 말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가족이 영원히 축복 받을 뿐 아니라 사회 자체도 영속성이 유지됩니다.

몇 년 전 저의 10대 아들이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상 연락을 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우편엽서에다 간단히 “엘마서 37장 35~37절을 읽”이라고 적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마가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구하고... 너의 마음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님께 돌리게 하라... 주께서 너희를 선으로 인도하시겠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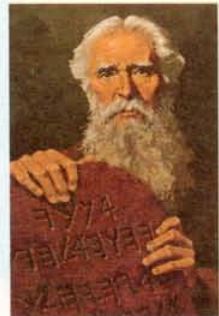
이에 대해 저의 아들 또한 이런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리와 성약 2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구에서 우리는 예언자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의 재림에 앞서 엘리야의 손을 빌어 신권이 나타나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2:2~3)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답장에 감동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알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제 아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는 다섯 번째 계명을 받아들였음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말라기 4:5~6절 참조)에 대한 모로나이의 설명은 단순히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다시 말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가족이 영원히 축복 받을 뿐 아니라 사회 자체도 영속성이 유지됩니다.



부모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 의미를 중요시하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의 정신과 약속에 관해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엘리야의 영이 -가족을 함께 인봉하는 신권의 권세- 자녀들의 마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말일성도 자녀들의 경우 그것은 성전에서 그들의 지상의 부모에게 행해진 약속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된 축복이 실현되면 그들은 물론이고 “온 땅”이 “황폐”됨으로부터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기적적인 마음의 변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에 목말라하고 이를 갈구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로 매일 밤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들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자리를 잡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제 아들의 반응에 것처럼 감격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우선 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곧 태어난 그의 형 이야기를 들려야겠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 이 아이의 가운데 이름에 붙여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신의 이름이 구식이라고 어색하게 여기고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교 시절 토론 반에 들어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1920년대 당시 토론에는 따라 올 사람이 없었을 만큼 훌륭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는 자기 이름에 대해 일종의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친은 성인이 된 이후 거의 평생 동안 개인 일지를 기록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졌던 대규모 토론의 첫 부분에 대해 적어 놓으신 기록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꼭 읽기를 바라면서 일지를 넘겨 주었습니다.

아들은 착하기는 했지만 키우기가 쉬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인내하게 해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저희는 신앙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뿌리박기를 기도 드리면서도 그것이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말썽 많은 사춘기 시절 사고로 죽은 제 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제게 짧은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전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 일은 절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빠 형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셨듯이는 안 할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사사로운 일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지가 생각났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제 아들은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하고서는 밤늦게 저희 부부에게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전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지만, 곁에 계시면서 절 도와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그를 꼭 안아 주었고, 할아버지에 관해서도 더 상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제 아들은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에 어떻게 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느라 고심했습니다. 그 무렵 저희 가족은 가족 모임 때문에 유타 주 남부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어느 작고 외딴 협곡 지대로 갔는데, 그곳은 그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승마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곳은 그 분이 돌아가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지를 읽고 그 곳에 대해 알게 된 제 아들은 멀리서 이 협곡을 바라보는 것은 했지만, 직접 찾아가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 무릎 꿇고 자신의 신앙과 선교사 부름과 삶 자체에 대해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 나가는 사람을 위한 송별회에서 그날의 거룩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협곡에서 어떤 깊은 확신과 삶의 방향에 대한 인도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세월이 흘러 어엿한 가장이 된 그는 당시와 똑같은 확신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으며, 저는 돌아가신 제 부친께서도 이에 대해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 부친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제 마음에 심어졌듯이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뿌리내려졌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장막의 이 편과 저 편에 있는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 주는 결속력과 소속감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고대의 예언자 선조들은 장막의 양편에 있는 여러 세대를 한 데 묶어 줄 수 있는 유대감과 소속감에 대해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소속감을 통해 우리는 주체성과 목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와의 유대 의식이 갑자기 하나의 현실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지며 기대감 역시 향상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로 마음을 돌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명기 5:16)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나날들에 개인적 안전함과 행복과 하나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이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사회와 개인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자신의 마음을 선조에게로 돌려 그 선조들이 터득한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 유대의 상실

현대는 우리가 혈연 관계 및 결혼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대인 관계가 해

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에만 매달리는 자녀들, 부모, 혹은 배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교리와 성약 1:16)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과 관련된 축복의 부정적인 측면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조와 자손 사이에... 굳게 연결하는 줄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은 저주를 받는다 함이니”(교리와 성약 128:18) 말라기서에는 예언의 일부로서 축복과 마찬가지로 저주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들도 가족 유대의 상실로 비롯되는 세상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기록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디모데후서 3:1~3)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태복음 24:12)

통계 숫자를 보아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미혼 남녀가 낳는 자녀, 이혼, 가정 폭력 등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통계 수치 자체보다는 이러한 통계치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의 자세가 더 문제입니다. 한 익명의 작가가 지적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서

로에게 무관심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여러 중요한 교차점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 망이 손 쓸 도리가 없이 해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혼도 그런 상황에 있음”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체 현상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공통적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의 자유나 성취라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두는 나머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란 풍요를 가져다주기보다는 오히려 구속적인 데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고독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익명의 편지, “세상의 화제”, 뉴욕커지, 1976년 8월 30일, 21~22쪽)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개인의 소외 현상을 낳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단체 정신”을 망각하게 합니다. 단체 정신이란 다시 말하면 사회의 영속성, 나아가서는 문화의 보전을 위해 이어지는 세대마다 반듯이 가져야 할 필수 지식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연결 고리가 끊기면 지식과 지혜가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생존을 위해 적어도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되는 신앙 체계를 함께 나누고,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며... 자신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잘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엘스톤 체이스, 단체 정신: 대학 안내 및 1980년대 학생들의 살아남기(1980), 284쪽)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땅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참된 소속감

십계명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다섯 번째 계명은 오늘날의 “자녀의 권리 찾기”운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운동은 자녀 학대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에 경각심을 주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구나 교육 기관들로 하여금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선조들에게 행해진 약속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커녕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나 기타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들과의 연결 고리에서 풀려나게 하려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권리”를 주자는 이 운동은 솔직히 자녀들에게 버림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들의 최대 “권리”는 이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부모나 지역 사회로부터 사랑 받고 교육을 받으며 잘 훈육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 말고는 이들에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좋은 방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처럼 서로 존중하고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다섯 번째 계명에 담긴 약속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른들은 자녀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상반된 이해 관계를 보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려면 엄청난 양의 시간과 힘과 부모나 지역 사회의 재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리”를 부여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성약을 존중할 때, 그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영적인 힘과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진다.

한다 함은 그럴듯하게 위장된 핑계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오랫동안 자녀를 보호하고 키워야 하는 책무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충분히 혼자 있도록”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는 자녀를 혼자 내버려둠으로써 개인적으로 무척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인내하고 좌절감을 느껴 가며 자녀에게 중요한 생활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 형제에게 무책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에 게을리 하면 유대 관계가 소홀해져 제대로 배우지 못해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 자녀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숙제로 공작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 아내 마리가 그 아이를 도울 방편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 나머지 아이들을 주방에서 데리고 나오자 곧 손으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간간이 4학년 짜리 아들 녀석이 버럭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 왔는데, 그는 만들기를 더 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저는 그 아이를 제 방으로 돌려보내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계획대로 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약 세 시간쯤 흘렀을까 제가 나머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 주고 있는데, 고집쟁이 녀석과 아내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생일 케이크라도 되는 듯 자랑스럽게 공작물을 들고 들어온 녀석은 제 형제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체를 다 제 힘으로 만들고, 공작물을 조리대에 올려놓고는 잠을 자기 위해 제 침대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제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천진 난만한 웃음을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녀석은 또 방을 가로질러 달려와 팔로 제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아내 역시 그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의미 있는 시선을 주고받았으며, 우리는 그가 잠자리에 들자 방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냈소?”

그러자 아내는 그 아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 절대로 화를 내거나 이성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공

작을 하느라 밤을 꼬박 지새울지라도, 아들이 아이를 두고 자리를 뜨는 것은 좋은 대안이 못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어떻게 그럴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소속감에서 비롯된 정성어린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인내와 참음성의 보고를 자기 안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소속감은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불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 당시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변함없이 충실함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 즉 좀 더 구세주와 같아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의 가족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서로 어떤 책무가 있는지에 관계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 중 다섯 번째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혈연 관계와 결혼이라는 우리의 오랜 체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법적인 의미의 “가족”에는 자원과 의무를 함께 나누는 존재가 둘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법학자는 어떤 “친밀한 관계”든 법이 일반적으로 결혼과 혈연 관계에 부여하는 우위를 똑같이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문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혈연 관계와 이성간의 결혼이라는 영구적 관계에 기초를 둔 체제가 더 없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사고에 점차 많은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것에는 관대하기만 한 사회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전통적 가족 구조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사가 근래에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에는 가족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것이 개인의 소중한 자유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요소는 자녀들의 필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정적인 환경과 어른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자녀의 정상적 심리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통적인 가족이 갖는 법적인 우위가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 생활은 공중 도덕의 원천이 됩니다. 가정 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에 순종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며, 의무를 이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개인의 자유는 그와 같은 원칙들이 있어야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안전 장치가 없다면 가



혈연 관계로 대표되는 서로에 대한 소속감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속하는 데 하나의 전주곡이 된다.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속할 준비를 하게 된다.

족과 지역 사회는 기강이 떨어지고 말 것이며, 개인의 자유 또한 머지 않아 상실될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앞서 말한]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서로 헌신할 때, 자녀와 부모는 권위와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역사가인 크리스토퍼 라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광범위한 감정 교류 속에서 가장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부모 안에 있는 사랑과 훈계가 결합되어 생기는 애증의 감정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은 자녀는 걱정이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결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녀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지 전문적인 의료인이나 심리 상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과정을 겪어 본 자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게 되고, 부모 외의 다른 어른들과도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자녀의 마음에는 "도덕적 표준이 양심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정한 세상에서의

안식처: 포위된 가족(1979),123쪽)

셋째로, 공적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가족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관을 심어 주는 데 꼭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단위 체계가 자녀들에게 가치관 교육을 시킬 때 정부가 지나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결혼 자체가 가정과 그 구성원들을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사회의 안전을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결혼과 혈연 관계에는 영속적인 헌신이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은 여느 인간 관계와는 다른 범주 안에 속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장차 다가올 유익함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한 개인적으로 치르는 희생은 정당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와 같은 관계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로서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체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시킴으로써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오래도록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혈연 관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후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적인 욕구를 잠재움으로써,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속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평화를 선포함

주님은 교리와 성약 98편 16절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힘쓰라.” 엘리야의 성역의 참 뜻을 되새기면서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평화와 또한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서로 서로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포하는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사회에 축복이 되며 이러한 것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제 말씀의 첫 부분에서 선조에게 행해진 약속이 어떻게 자녀의 마음에 심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자녀와 선조들을 서로간의 세대를 초월해, 심지어는 사망의 장막까지 가로질러 사랑으로 한데 엮어 주는 것을 보여 주는 가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젊은 이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확인을 통해 그는 축복 받았고, 대인 관계에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린 다음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성역의 영이 친 혈육이라는 한계선을 벗어나 어떻게 부모 자식간에 공경하는 마음을 향상시켜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저는 자기 때 말일성도 가정으로 입양된 한 여성과 말씀을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자

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안 지 얼마나 되었느냐는 제 질문에 그 분은 자신이 네 살 때 아버지가 가정의 밤 시간에 구원의 계획에 관한 공과를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관해 토론을 하면서, 그 자매님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자녀를 갖고 싶지만 육체적인 문제로 자녀를 이 지상으로 데려올 수 없는 부모들이 더러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분은 또 이러한 경우, 부모는 금식을 하면서 사정상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생 부모가 있다면, 그 특별한 아이를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도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매님의 아버지는 딸을 품에 안고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매님을 보내주셨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주님께서 자매님의 양부모에게 하신 약속이 자매님의 마음에 심어졌으며, 그 결과 자매님은 평생 동안 마음의 평화와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유리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저는 우리가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에”(교리와 성약 98:16) 열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너희 자손들 가운데 죄악이 일지 않을진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저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번영을 방해할 자가 없으리라.”(니파이서서 1:31)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약 신앙의 원리가 없었다면, 세상은 창조되지 못했을 것이며 인간도 역시 흠으로 형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앙의 원리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신앙의 원리에 따라 권세를 행사하십니다.”(요셉 스미스 편, 신앙 강화[1985년], 16쪽)

만일 우리가 자신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행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진대, 우리는 “내게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리라”라고 구세주께서는 약속해 주셨다.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성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모로나이서 7:32~34 참조)

신앙은 믿음과 순종과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증진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좇으며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행함으로써 증진되는 일종의 성스런 은사이다.(엘마서 32:27~43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사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에 신앙을 더하여 더 큰 신앙을 주십니다 ... 신앙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르며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97년], 56쪽)

어느 날 진 사 자매는 딸 일레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때 그 자매는 딸 일레인에게 “엄마와 아빠가 죽기 전에는 네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없을 것 같구나”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일레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말씀이 떠올랐다. 일레인은 슬펐지만 어머니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일레인은 자신이 배운 대로 진리를 믿고 복음의 의식들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키워 나갔다. 그녀의 신앙은 점점 증진되었고 지금은 부모가 없는 처지이지만 신앙의 힘으로 스스로 인도하심과 위로를 받으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따라 우리를 통해 역사 하심

우리의 신앙이 증진될 때 예수 그리

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보다 잘 역사 하실 수 있게 된다. 에이비시는 라모나이 왕의 궁전에서 “여러 해를 두고 하나님을 믿어온” 레이맨인 여인이었다. 그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암몬이 라모나이 왕과 그와 함께 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자 그들은 모두 영의 임재하심에 압도되어 땅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에이비시는 라모나이 왕의 모든 종과 그의 여주인으로 섬기는 왕후와 왕과 암몬까지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다. 이렇게 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 주고 싶어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궁전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에이비시는 레이맨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엘마서 19:16~17, 28~36 참조)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세주의 축복을 받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의식을 따르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가게 될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의 충성스런 자녀들이 가지는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선을 행하도록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침례 의무

“저는 침례 받은 남녀, 어린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음으로써 스스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됨은 물론, 평생을 복음대로 살고 마땅히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가 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경합니다. 충실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며 그분의 값진 축복을 간구하십시오.”(1997년 1월 21일, 온두라스 산 페드로 술라, 노변의 모임)

영광스런 명분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넘어서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세상에 강하게 맞서 우리의 문명을 밝히고 우리의 삶에 위안과 평안을 주는 대의 명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지도자가 될 것을 권능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표방하는 명분 안에서 이 교회 회원으로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요 사악한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적은 노력하려는 여러분이 망설이도록 꾀합니다. 두려움을 던져 버리고 진리와 의와 신앙이란 대의 명분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 생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결심한다면 그 결심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베소서 6:11 참조)를 입을 것이며 진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1996년 9월 17일, 유타 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어떤 경우라도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공헌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어야 합니다.

“문제로 가득찬, 끊임없는 어둠과 악의 도전으로 위협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평범하거나 사소한 것을 초월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것을 위해 강한 목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1996년 9월 17일, 유타 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의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준 어린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십시오,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1997년 1월 23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노변의 모임)

이웃과 교회에 대한 충성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방관자로서 불평이나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 비방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적들에 대

항해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1997년 2월 2일, 유타 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개종자를 도우십시오

“우리는 모두 [개종자]에게 형제애를 발휘하여 그들을 팔로 감싸며 교회의 모든 활동에 데리고 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과 연락을 하며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저는 침례 받은 모든 남녀나 어린이가 교회에 활동적으로 충실히 남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개종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잠시 동안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지만 그들은 그 뒤 점차적으로 활동이 저조하게 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충실하게 남아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최근에 침례 받은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노력까지 해주시기를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행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개종자에게 동료애를 보이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고자 손을 뻗칠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말일성도가 됩니다.”(1997년 1월 20일, 코스타리카 산 호세, 노변의 모임)

불법적인 마약

“여러분은 불법적인 마약으로 어리석은 실험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실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 영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신성한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분의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보살피야 합니다. 마약에 탐닉하여 중독되어,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단속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그러한 것들은 나쁜 것들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1996년 2월 24일, 노스 캐롤라이나 주 샬롯테,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



용서하는 마음



로더릭 제이 린튼

미국인 기자 테리 앤더슨은 레바논에 인질로 억류된 지 2,455일만에, 그리니까 거의 7년만인 1991년 12월에 풀려 나왔다. 텔레비전에 방영된 기자 회견에서 자신을 억류한 자들을 체포하여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그는 납치자들을 추적하는 일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은 그의 대답이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저는 참으로 새로운 삶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질 스몰로우, "시련: 감옥에서의 삶" 타임지, 1991년 12월 16일, 22쪽)

테리 앤더슨의 답변은 세인의 이목을 끌 뉴스거리를 찾는 기자들에게는 실망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히 분노와 복수심에 찬 이 사회에 용서의 원리를 실천하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고 자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난다면 온 세상의 슬픔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킴

용서는 단지 필요할 때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적인 속성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비판 또는 비난하고 배제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용서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참아 주고 도리어 그를 사랑하기를 추구한다. 용서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참된 본성은 친절하고 자비로워지며 오래 견디고 참을성이 생겨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의미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비와 동의어이다. 용서는 용서를 베푸는 자와 용서를 받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며 키워준다.

용서하는 마음을 거부하고 대신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을 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동기 중에서 가장 나쁜 면을 취하여 걸핏하면 화를 낸다. 그들은 인간

용서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참된 본성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관계에서 빚어지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낀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표준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곧잘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서하지 않듯이 자신의 결점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이 좌절된 데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까지 한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용서하지 않으려는 본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육으로 난 인간”은 용서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베냐민 왕이 가르쳐 주었듯이, “성신(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될 수 있다.(모사이사서 3:19 참조) 베냐민 왕의 이 권고를 따르는 사람은 용서가 전보다 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생활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폴 홈 형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1973년 11월, 폴 홈 형제의 열 살된 딸, 켈리는 켈리포니아 주 산 호세에 있는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과수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을 때 한 십대의 소년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는데 결국 그는 켈리를 겁탈하고 살해까지 했다. 그 후 이 젊은이는 곧 유죄가 입증되어 종신 징역 선고를 받았다.

전에 감독으로 있다가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던 폴 홈 형제는 그의 생애에서 최악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막내 딸의 돌연한 참사는 이 형제의 정의감을 무참히 멩들게 하였고 그의 신앙에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자신이 몹시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정신적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 그 고통은 분노와 쓰라린 원한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그렇지만 폴 홈 형제는 자기 자신과 슬픔에 쌓인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의 위안을 구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딸 켈리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안에 있음을 알고 위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복바치는 원한을 해소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복지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신의 인도에 의하여 홈 형제는 또한 그의 딸을 살해한 젊은이의 가족에게로 생각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딸이 안전하고 만족스런 상태에 있음을 알았지만,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 젊은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를 받아 평화롭게 살 무슨 희망이라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아들이며 형제인 그 젊은이가 (육중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역시 괴로워하며 누구한테도 위로 받지 못하고 있을 그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홈 형제는 염려가 되기 시작했다.

홈 형제는 그 가정을 방문하여 자신이 줄 수 있는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는 그 젊은이의 가족을 만났고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다. 홈 형제가 그 가족들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진실한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가족은 신앙이나 사랑과 같은 기독교의 단순한 교리를 한번도 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홈 형제는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의 방문이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지 홈 형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홈 형제 자신의 마음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쓰라린 마음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 사랑(자비심)이 자리를 잡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례히 승락을 해 준 홈 형제에게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감사를 드린다.)

용서는 용서를 가져 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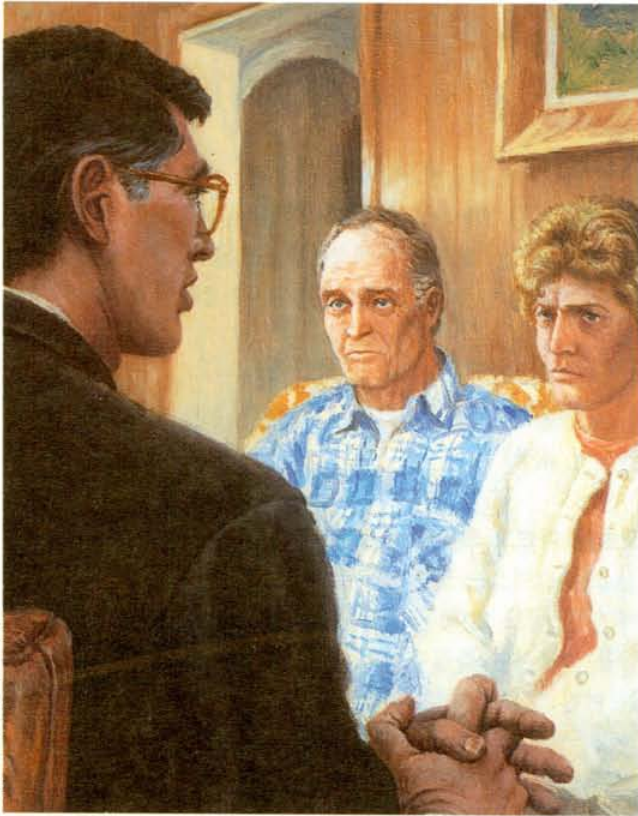
경전은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마태복음 6:12)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음을 강조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태복음 6:14~15)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4:9)

트루만 매드슨 형제의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해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속죄의 축



혹 형제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젊은이의 부모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마음에는 쓰러림과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 평안과 사랑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복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어) 절망에 빠질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돌아서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이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안돼! 용서하지 마! 난 용서 못해, 그는 용서 받을 수 없어!’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과 연민과 계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판을 여러 겹으로 싸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트루먼 지 매드슨, “용서”, LDS 사회 사업 세미나, 1998년 8월 3일)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교리와 성약 64:1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모범

교회사에 실린 한 애절어린 이야기를 읽어보면 용서하는

마음의 힘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커트랜드에 중심을 두고 교회 활동이 행해지던 시기에 교회에 들어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헌신적으로 따른 사람이었다. 그는 미주리에서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재정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는 앙심을 품게 되었고 드디어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반대한다고 스스로 선언하였다. 그의 변절 행동은 당시의 지사 윌버 더블류 보그스의 ‘말일성도 근절령’에 따라 예언자와 많은 지도급 형제들이 체포되었을 때 드러났다.

예언자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예언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었다. 설상 가상으로 윌리엄은 말일성도들의 최대의 적이 저질렀던 행동을 옹호하는 조서에 서명까지 해주었다.

그 결과 윌리엄의 행동은 예언자와 몇몇 다른 형제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가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보인 배신 행위로 인해 쓰디 쓴 절망감을 감내해 낸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로부터 2년 후, 펠프스 형제는 격심한 고통과 참회 끝에 예언자에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

“요셉 형제님에게... 저는 지금 탕자와 같습니다. 제가 멋대로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심연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펠프스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심한 징계를 가해서 자기를 형제들에게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교회 정사, 4:141~142)

그러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답을 썼다. 이는 용서의 힘과 그의 정신의 위대성을 보여 주는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된다.

“사랑하는 펠프스 형제님에게...

“우리가 형제님의 편지를 읽을 때 나와 리그돈 장로님 그리고 하이람 형제님의 느낌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형제님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형제님의 결심이 진심임을 확인했을 때,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은 애정과 연민의 정으로 녹아 내렸습니다...”

“형제님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형제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가 당한 정신적 고통은 인간이 마시도록 이미 채워진 쓴잔

에 철철 넘치도록 더 채워 넣은 쓸개즙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그런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쓴잔을 다 마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출된 이상, 원수들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품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가운데 형제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근면과 겸손과 가식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자 형제님의 하나님인 주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는 것은 형제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드립니다.

“형제님의 고백과 참회가 진실됨을 믿고 저는 형제님에게 다시 우정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탕자로 인해 기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펠프스 형제님, 전쟁은 끝났습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처음에 친구로 만났다가 마지막에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형제님의 변함없는 요셉 스미스, 6월.” (교회 정사, 4:162~164)

펠프스 형제는 새로운 결의와 약속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예언자에 대한 그의 애정과, 또 한 차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감사의 마음은 정말 깊고도 진지한 것이었다. 예언자 요셉의 장례식에서 말씀한 사람은 바로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였고, 그 후 교회 회복에 관한 찬송가들 가운데 다음의 가사를 쓴 사람도 바로 그였던 것이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 부어 예언자 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못 왕과 온 백성 경배하라...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
세상은 그의 피 보상하리
심판의 그날 위해 다 일어나라
세상은 요셉을 다시 알리라

예언자 찬양하라 승천한 예언자!
폭군도 적도 이젠 대적 못하리,
하나님 예언자 함께 하시니,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예언자 요셉은 참회하는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이렇게 썼다. “형제님에게 다시 우정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탕자로 인해 기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친구로 만났다가 마지막에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영웅 이길 자 없도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모범을 따르고 원리를 적용함

요셉 스미스는 또한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도 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특징이 인내와 오래 견딜 것과 자비인 한은, 저는 이번 일을 선례로 삼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성도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정사, 4:16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은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모범을 따를 것을 가르쳐 준다. 우리가 이 같이 할 때, 우리의 생활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세주에게 돌아오게 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친절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인해 당시의 성도들로부터 애정을 받았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우리는 이후로 여러분이 ... 서로를 용서하고 ... 이웃에 대해 적대감을 품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령기를 빕니다. 신권을 가지고 성신의 은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해 시기와 악의와 앙심 등,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말일성도들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도리어 그 사람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기심과 증오심을 떨쳐 버리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말끔히 씻어 버리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외치셨던 주님의 영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 정신이야말로 말일성도들이 온종일 간직해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



1851
Wm. M. Chase
New York

왜 전에는 교회에

익명

그림: 캐리 헨리

내가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할 만한 나이가 되자 곧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복음이 참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독일에 있는 우리 와드에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거기 가고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이미 안다고 생각했고 그 틀에 박힌 일상이 싫증났습니다.

그 곳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 나는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나는 회원들이 그들의 말씀이나 간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몇 부모와 자녀들은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험담을 하고,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인지 가끔씩 교회 건물로 찾아오는 집없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는 회원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그 유명한 자비라는 것은 어디로 간 거야? 나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썼던 사람들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 정신에 한참 사로잡혀 있을 때 비회원인 친구들이 담배와 술을 권했으며 나는 그렇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밤시간을 밖에서 더욱 길게, 더욱 자주 보내게 되었고 주말에는 언제나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피곤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 즉 교회 회원들에게서 보았다고 생각한 위선과 내가 굴복 당했던 유혹들, 교회에 대한 싫증, 나의 자만심, 불순종 등과 같은 것이 나를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나는 법정에 서야만 하는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다. 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 교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나는 한 신뢰할 만한 교회 회원에게 가서 나의 문제들을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가고 싶을까

가지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옳은 말을 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는 내가 기로에 서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만 했고 아니면 진흙탕 그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찾아오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너무나 선명해서 결코 잘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친구는 아버지께 연락하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셨으며, 너무나도 강한 영으로 저의 눈가에 눈물이 고임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만일 부모님이 내가 함께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교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의 권고

나는 여러분이 표준을 지키면서 좋은 친구들을 찾는다면 교회 밖의 친구들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친구들이 복음에 어긋나는 어떤 것을 제외하거나 하라고 권유한다면 여러분은 아니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한다면 그러한 친구들과는 헤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긴 해도 말입니다. 나에게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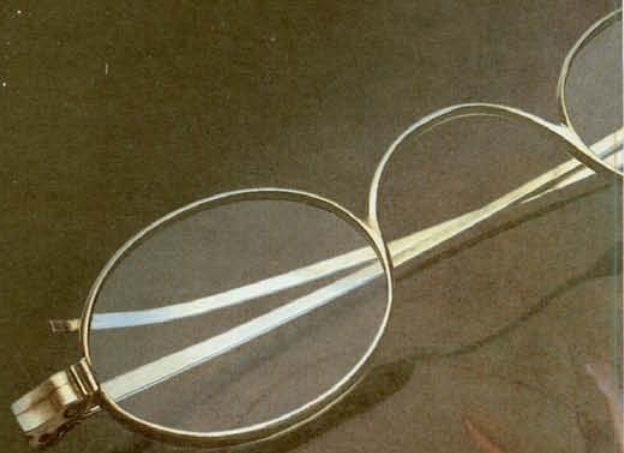
나는 여전히 위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 자신도 계속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교회에서의 말씀은 여전히 비슷하고 모임들도 똑같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들에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대신에 교회 모임이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주의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다시 길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큰 흥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주님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나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해 받고, 사려 깊게 대우 받으며, 사랑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



교재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2대 대관장인 브리감 영은 미국 서부에 엄청난 규모의 말일성도 사회를 건설한 주역이고 개척자였으며, 또한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이자 사도이기도 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며 지도자' [주간 테저렛 뉴스, 1871년 5월 24일, 5쪽]라고 간증했다. 또한 '저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저는 그분으로부터 지식을 받았습니다.' (주간 테저렛 뉴스, 1855년 11월 21일, 2쪽)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여 받드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

다음의 사진과 미술품 및 공예품들을 보고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생애와 인품을 알 수 있다.

교회 제2대 대관장 브리감 영의 생애와 성역을 보여주는 사진, 미술품 및 공예품들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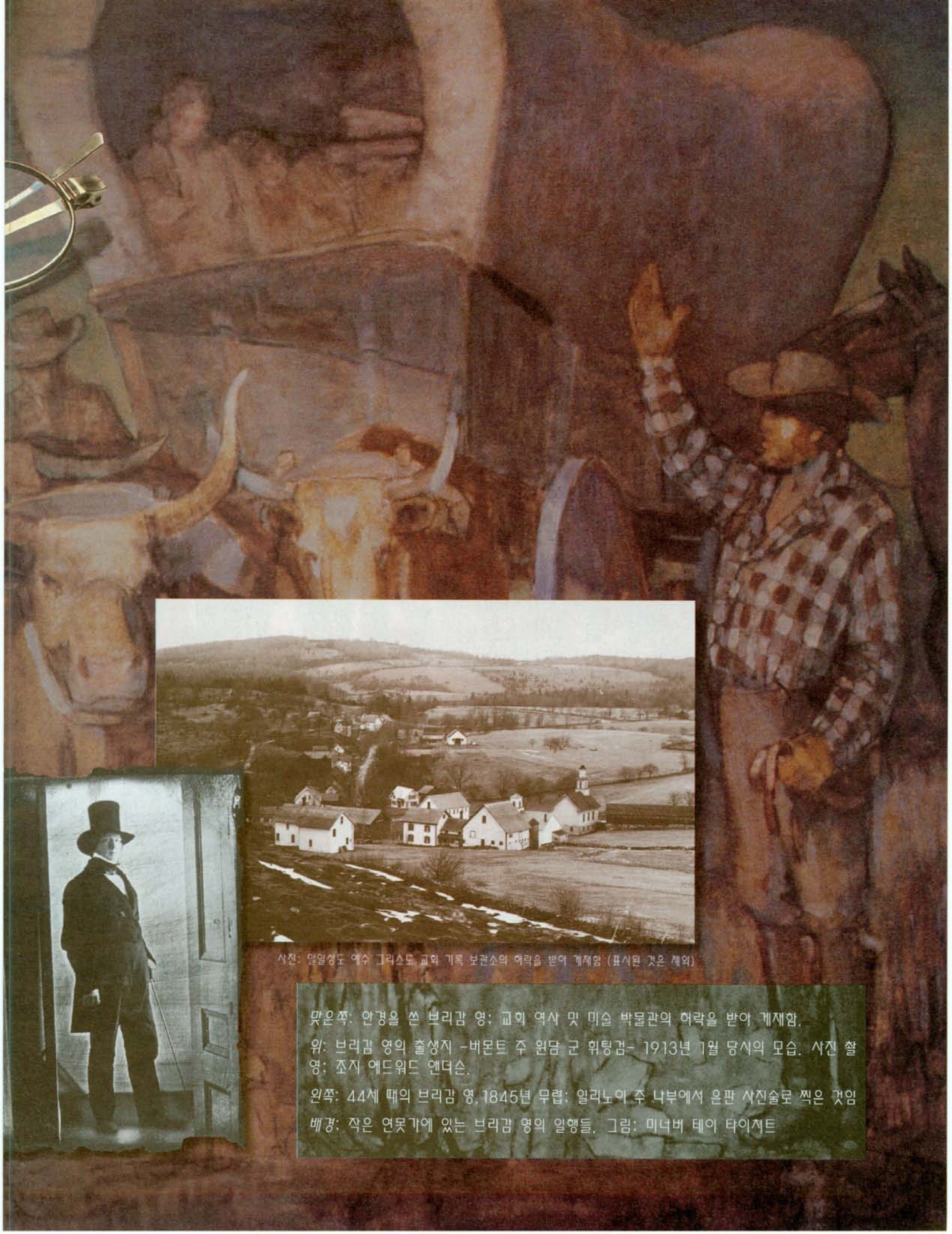


사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록 보관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표시된 것은 제외)



맞은쪽: 안경을 쓴 브리감 영;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위: 브리감 영의 출생지 -버몬트 주 원담 군 휘팅엄- 1913년 7월 당시의 모습. 사진 촬영: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

왼쪽: 44세 때의 브리감 영, 1845년 무렵;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은판 사진술로 찍은 것임
배경: 작은 언덕가에 있는 브리감 영의 일행들, 그림: 미너버 테이 타이처트





위, 왼쪽: 라이언 하우스와 비하이브 하우스-라이언 하우스는 1860년 당시 영 대관장의 사무실로 쓰여졌으며, 비하이브 하우스는 역시 같은 예에 주택으로 사용되었음: 사진 촬영: 찰스 더블류 카터.

위, 중앙: 1832년으로 들어서기 얼마 전, 뉴욕 주 멘돈에서 브리감 영 자신이 만든 의자: 1830년 3월 16일 브리감 영은 한 약속 어음에 자신이 서명할 때, 대부금 상환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1개당 50센트로 저주방용으로 쓰일 양호한 의자"를 제작하는 데 동의하였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위, 오른쪽: 51세 때의 브리감 영 대관장, 1852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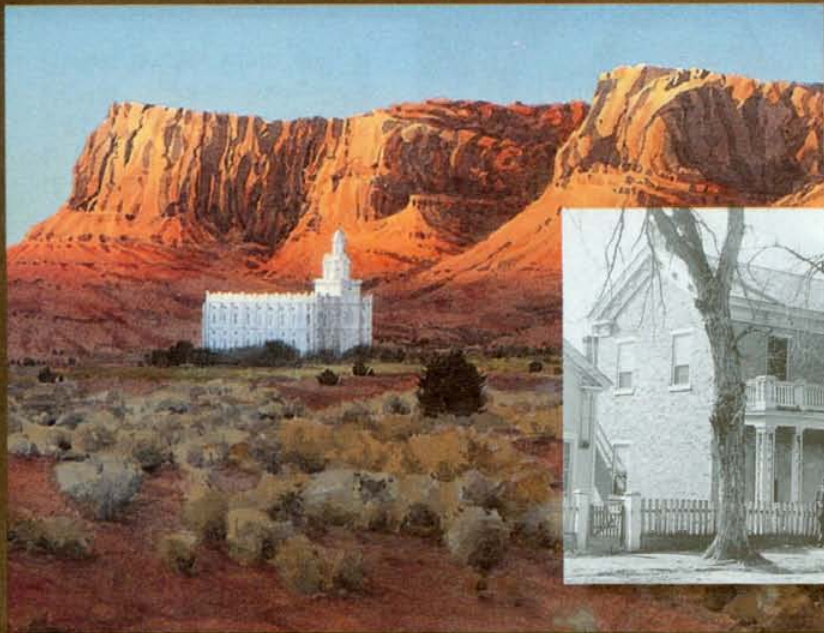
아래, 왼쪽: 브리감 영이 착용한 비버 모피로 만든 겹옷, 실크 모자, 정장용 맞춤 부츠(신발):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아래, 중앙: 1847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서부 이주 여행시,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사용했던 나침반: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아래: 브리감 영 대관장이 몇몇 형제들과 같이 있음. 1870년 무렵: (왼쪽으로부터) 로렌조, 브리감, 피니애스, 조셉, 존: 사진 촬영: 시 알 세비즈.

배경: 1870년 3월, 유타 남부로의 이주 여행 도중 브리감 영과 그의 일행이 콜로라도 강 근처에서 야영을 함: 사진 촬영: 시 알 세비즈. 영 대관장이 맨 앞 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눈에 띄는 높은 모자를 쓰고 앉아 있다.





President's Office
S. L. C. City, Febr 6th 1866.

Bishop R. L. Johnson
Mountain Green

Dear Brother

We intend
resuming work upon the temple and
tabernacle soon, and would like to
know what resources we may expect
to count on the work. How therefore
will please inform me, as soon as
possible, how much tithing, in
kind, you have on hand, as expect
to have the coming spring.

Your Brother in the Gospel

B. H. Young



맞은편 쪽, 위 왼쪽: 붉은 절벽, 사진 촬영: 엘 라운즈. 영 대관장은 이곳을 세인트 조지 성전 부지로 결정하였고 또 이 성전 헌납식을 감리도 하였다.

맞은편 쪽, 위 가운데: 유태 주 세인트 조지에 있는 영 대관장의 '겨울 집'. 1935년 무렵

맞은편 쪽, 아래: 1866년 브리검 영 대관장이 쓴 편지. 솔트레이크 성전 건립을 추진케 한 새로운 결의가 엿보인다: 그레고리 피 크리스토퍼슨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이 쪽의 위 왼쪽: 솔트레이크 성전의 기초 쌓기를 입체적으로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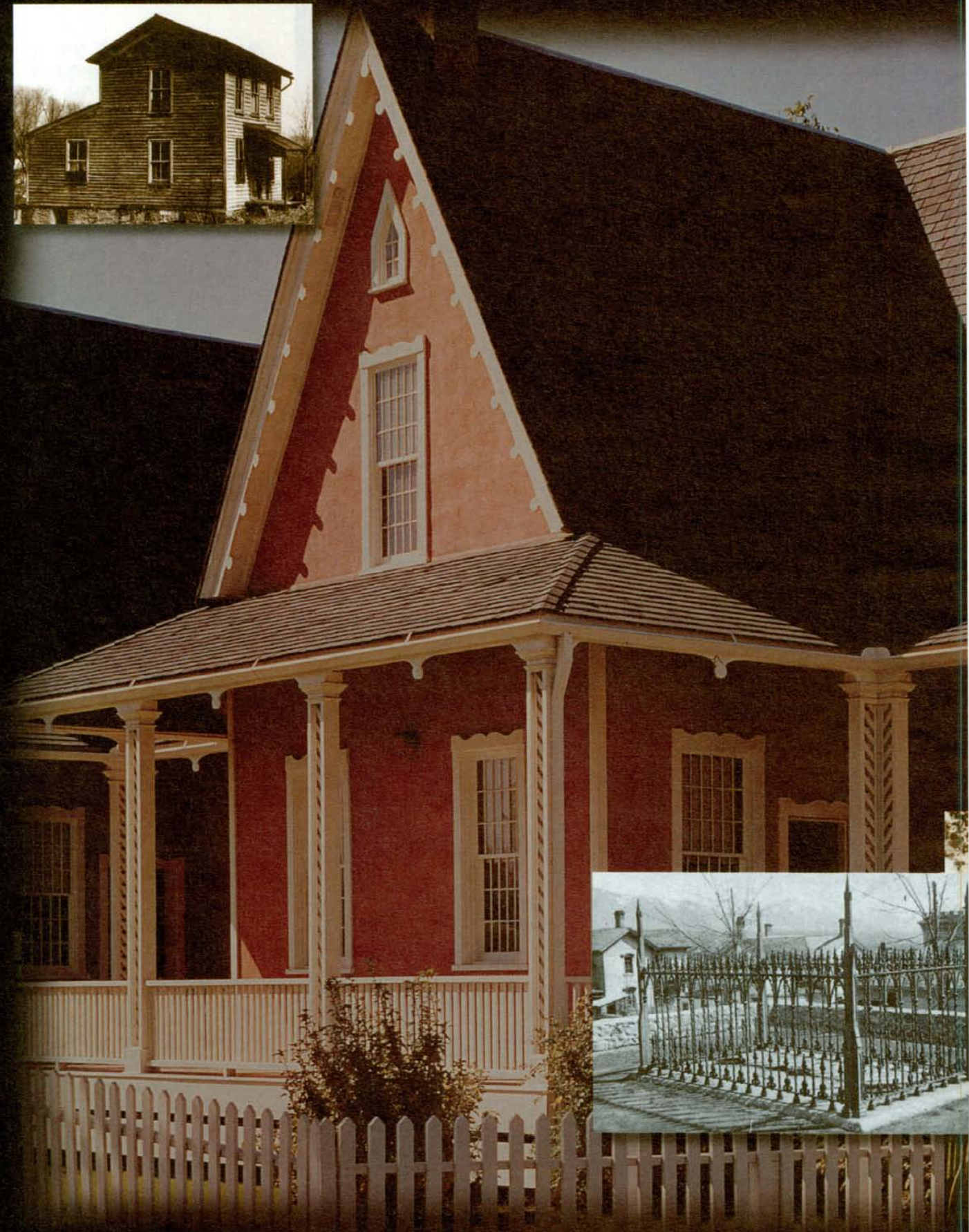
이 쪽의 위 오른쪽: 71세 때의 영 대관장. 1872년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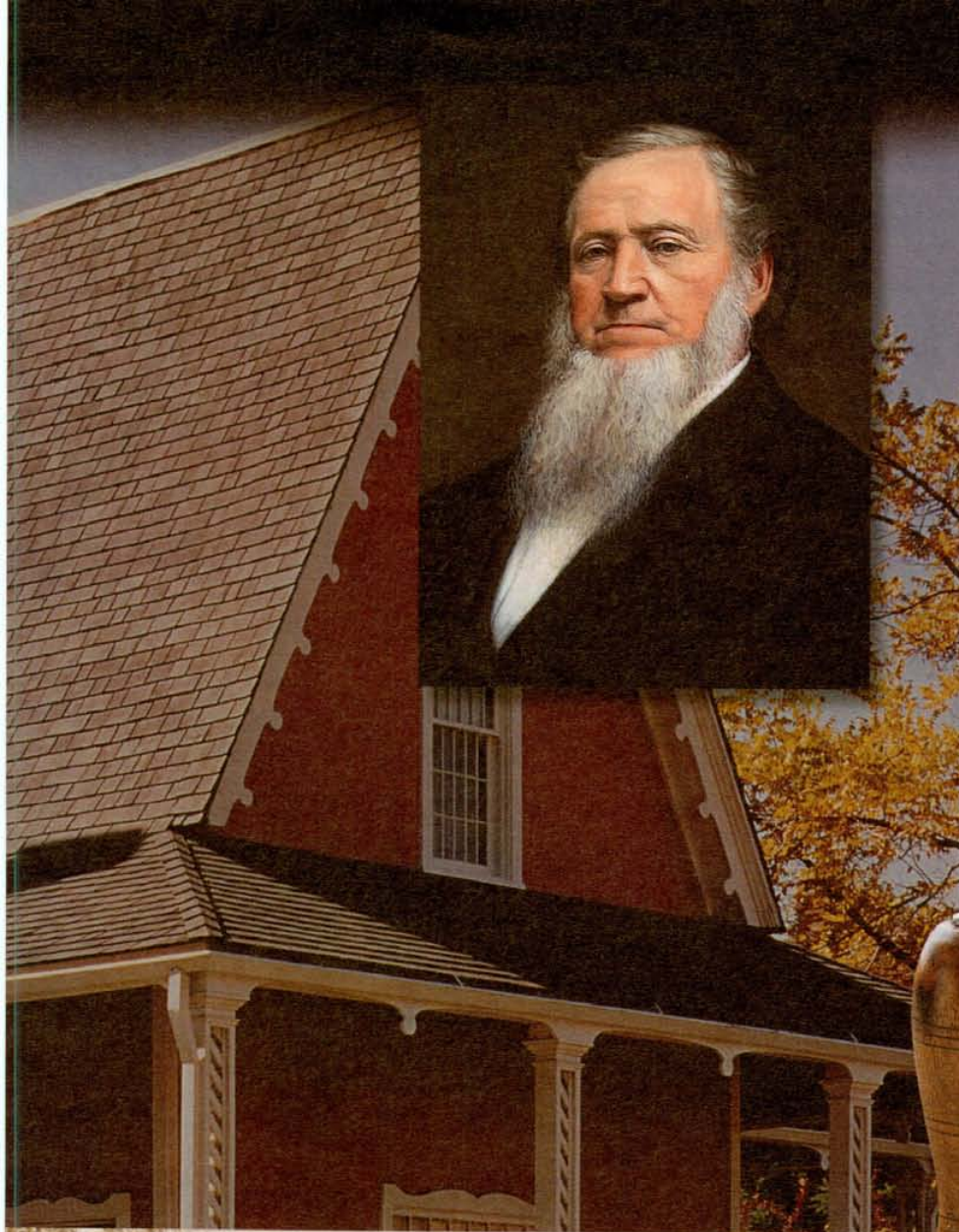
이 쪽의 아래: 영 대관장이 사용했던 우산. 우산의 상단 부분이 금과 자개로 장식되어 있고 영 대관장 이름의 머릿글자가 쓰여져 있다: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배경: 솔트레이크 성전 건립의 초기 단계: 사진 촬영: 시 알 새비즈. 배경에는 1875년에 헌납된 솔트레이크 태버네클이 기존의 태버네클, 이곳은 원래 지붕이 경사진 집회소였으며 1851~1852년에 초기의 개척자들에 의해 건립된 것임.



73





위, 왼쪽: 신혼 시절, 당시 교회 회원은 아니었을 때 브리검 영은 뉴욕 주 포트 바이론에 있는 이 집에서 살았음.

위, 오른쪽: 브리검 영 대관장의 초상화. 초상화를 그린 사람: 존 윌러드 클로슨.

아래, 왼쪽: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영 대관장의 묘지, 1882년 무렵: 사진 촬영: 찰스 더블류 카터

아래, 가운데: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영 대관장이 살았던 집. 1907년에 촬영.

아래, 오른쪽: 식사할 때와 기도할 때마다 영 대관장이 가족들을 불러모으기 위하여 사용했던 낫식중,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의 여력을 받아 게재함.

배경: 1863년에 완공된 영 대관장의 숲속 농장집. 원래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6키로 미터 떨어져 있었다. 영 대관장이 실제로 이 집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이곳 농장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그의 대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영 대관장은 특히 휴일 같은 날에 이 농장 집을 자주 방문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실험한 영농 기술을 방문객들과 고위층 인사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후 이 농장 집은 '바로 이 곳이다' 주립 공원으로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이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개되고 개척자 생활 모습을 소개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나아만, 침례와 씻음

트래비스 티 앤더슨

열왕기하의 5장은 회개와 침례에 관한 성경의 교화적인 구절과는 일견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열왕기하 5:1)

고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문둥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아만의 권세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죽어 가는 한 부정한 인간으로 비쳤다는 것은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의식과 정결함에 대한 특별한 선언은 문둥병이 만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의 필수 부분이다. 예를 들어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은 문둥병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칠일간 금고 하였다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여 그 병이 참으로 악성 문둥병인지 결정한다. 문둥병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옷을 씻고 그가 정결함을 선포한다. 만약 그 병이 문둥병으로 판명되면, 금고 과정이 반복된다. 만일 문둥병자가 두 번째에도 실패한다면,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진단하고 진 밖에 살도록 하였다.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그 병이 나왔다고 여겨질 경우, 문둥병자가 정결케 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치유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문둥병자의 치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마태복음 10:8; 11:5참조)

영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의식에 상응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의로운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단절되며, 궁극에

는 영적인 사망을 맞게 된다. 나아만의 문둥병처럼, 죄란 우리가 이 생에서 이루는 어떠한 위업도 가리우고 말 것이다. 문둥병에서 정결케 된 나아만의 경우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나아만은 사로잡힌 한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서 엘리사의 집으로 여행을 하였다. 화려하게 차려 입은 나아만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자의 손길로 자신의 부정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간청했다. 나아만의 간청에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열왕기하 5:10)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그라는 지시에 노하며 그대로 응하기를 거부했다.(열왕기하 5:11~12 참조) 이스라엘 땅에서 문둥병자에게 요구되던 칠일간의 금고에 대한 상징적인 언급과 문둥병자가 정결하다고 진단되기 위해 요구되던 씻음 의식에 대해 그가 무지했음이 틀림없다. 또한 그는 겸손과 순종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했다.

나아만이 화를 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듯하다. 첫째, 엘리사가 직접 대면하여 자신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종을 통해 대답했다는 것과 둘째, 치유가 예언자의 손에 의한 극적인 기적이기보다는 나아만이 실천해야 하는 간단한 행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도록 구하자,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서 씻도록 지시했다.

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영적인 면에서 상응하는 한 예를 볼 수 있다. 주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회개 및 침례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 복음의 메시지를 몸소 극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겸손한 종들과 미세한 영의 음성을 통해 전해 주신다. 주님은 기적적인 표적이나 개인적인 방문을 바라는 사람들의 허영심에 응하지 않으신다.

더욱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메시지처럼,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는 계명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적게도 더 많이도 말고 그만큼만 하라는 부름이다. 극적인 희생이나 시험을 요구하는 일을 보다 적게 해야 한다. 그에 반해, 단 한번의 위대한 위업보다는 평생토록 겸손하게 순종하며 봉사에 전념하는 일에 더욱 많은 것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합당한 권능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 침례 받기 위해 침례의 물로 들어감으로써 그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영적 씻음은 가장 위대한 하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장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의식은 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닦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자신을 낮추고 예언자의 가르침에 순응한 후에야 정결케 되었다. 나아만이 분한 김에 거절하자, 나아만의 종이 그에게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

“그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랍의 말씀대로 요단 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열왕기하 5:13~14)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강물이나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 그 자체에서 별다른 점을 보지 못했다. 그가 옳았다. 나아만은 물에 의해서나 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치유되었다. 침례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다. 합당한 권능과 침수에 의한 규정된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하지만, 침례 그 자체가 깨끗이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정결케 하는 것이다.

침수에 의한 침례는 상징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부활,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통해 죄의 삶에서 사망하여 영적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3~4) □

침례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실제적인 관문이다. 우리가 침된 회개를 하고 의식을 받으면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그분은 나아만과 같이 우리를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상태로 해방시켜 주신다.





초등 협회

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플랫 램브제스

사진 촬영: 로널드 엘 나이튼과 머윈 웨이트

저는 초등협회에 봉사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 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이들이 찬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경전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의 메시지와 권고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얼마나 흥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이든 초등협회에서 가르치는 자녀이든, 어린이들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현재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방부 초등협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부의 초등협회 어린이들은 솔트레이크에 있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이 주최한 어린이 150주년 미술 전람회에 참여했습니다. 감사장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나라에서 교회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초등협회가 교회의 한 초석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어린이들과 그들을 통해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저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

램브제스 자매(오른쪽 위)처럼, 안타나나리보 제4와드 초등협회 직원들은 (위와 오른쪽)은 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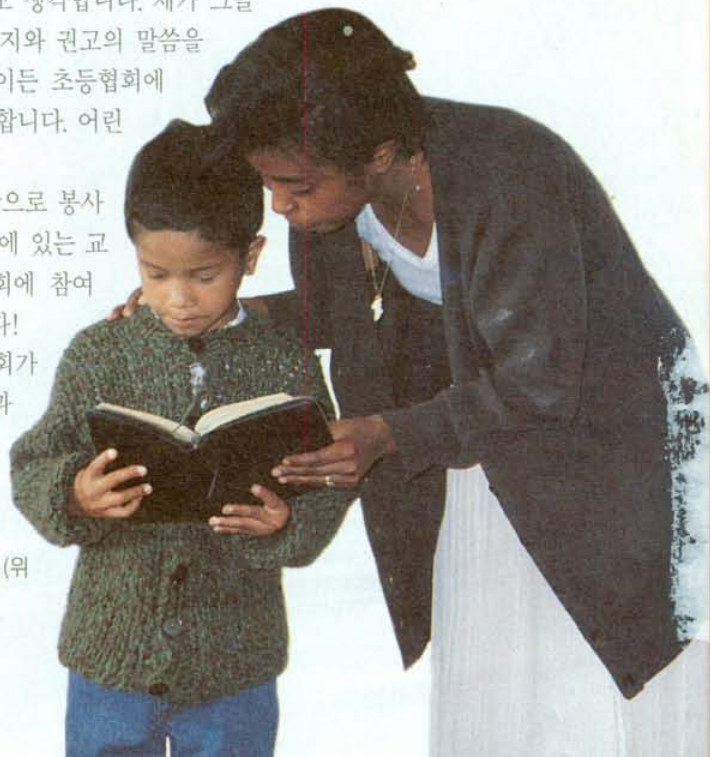




그림: 요셉이 자기 영들에게 자기를 알림. 바론 프랑스와-빠스칼 세벨도. 영계로 박물관의 아락을 받아 깨우침.

*요셉이 영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몽신들의 어우 요셉이니 몽신들이 영계에 올림에 판 지라. 몽신들이 나를 이곳에 붙였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몽신들 못서 보내셨나이다. (영세기 45:4~5)



150 On the first day of April next for value received I promise to pay William Helder or bearer eighteen dollar & fifty cents with interest ten dollar & fifty cents to be paid in gold. Further herein & fifty cents a piece will come off parties & dollars according to the usual mode of doing of such claims
 Helder - March 16th 1830
 Wm Helder



“시각 보조 자료를 통한 브리감 영 생애의 탐구 여행”(본문, 36쪽)에 소개된 사진, 미술품 및 공예품들은 교회의 제 2대 대관장인 브리감 영의 생애와 성역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